

【서 평】

한국에서의 미국학, “자립”과 “민주적 전망”을 위하여  
정연선 외, 『한국에서의 미국학-이론과 실제』  
(한국외국어대 출판부, 2005)

김 상 료  
(숙명여대 영문학부)

1866년 <제너럴 셔먼>호의 사건으로 한국과 역사적 인연이 닿은 미합중국은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8.15 광복과 한국동란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운명적인 관계를 맺었다. 5.16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군사 등 제 분야에서 명실공히 전통적인 맹방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는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한국적으로 이식하면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최근 9.11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의 포로학대,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서의 인권탄압,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유럽 도처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비밀감옥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또한 뉴올리언즈 사태에서 보여준 미국의 위기대처수준은 제3세계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일면서 미국의 신뢰는 국내외적으로 크게 실추되었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백인중심의 일방주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같은 이중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은 건국이후 자유민주주의와 노예제도, 평등과 차별이 병존한 모순적 정체성을 띠어왔으며, “폭력을 통해서 소생(regeneration through violence)”한

나라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강정구 교수의 발언 역시 한국동란에 대한 새로운 역사해석이라기 보다는 미국 역사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적 진영 가운데 한쪽에서 주장한 수정주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이렇듯 미국은 자유민주체제의 맹방으로서의 전통적인 위치로부터 미국의 네오콘과 신자유주의자들도 서슴없이 주장하는 “자유를 위한 제국(empire for liberty)”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 이와 같은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아메리카학회는 『한국에서의 미국학-이론과 실제』(2005)라는 한 권의 소중한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지난 2003년 개최된 한국아메리카학회 미국학포럼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미 발표된 다른 글들을 추가로 엄선해서 편집하였다. 이 책은 미국을 ‘지역학’의 한 연구대상으로서 삼고, 문학, 문화, 정치, 역사, 언론 등을 ‘학제적’으로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국내 최초의 학문적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책은 국내에서 그 동안 미국학 연구에 매진해온 총 13명의 원로, 중진, 소장학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국에서의 미국학이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학(American Studies)”을 우리의 시각에서 이론과 실제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과 각론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논의에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학 혹은 지역학의 하나로서 전문학자들은 물론이고 미국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학부, 대학원생 심지어 미국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한국에서의 미국학 이론과 그 실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묶은 책이다. 이 책은 미국에서의 미국학의 기원과 발전을 추적한 뒤, 그것이 어떻게 한국에서 하나의 학문체제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미국학의 역사와 현재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제가 보여주듯이 미국학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교육현장의 실재를 경험적인 사례를 통해 잘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학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미국학 과정의 설치 제안, 미국학 과목 개발의 실례, 미국학 교수법 등 미국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한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미국학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제로 배열되어있는 목차에 따라 읽는 것도 좋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다음 순서로 읽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먼저, 지난 40년간 미국학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과정과 학문으로서의 정착단계,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소상히 회고하고 있는 원로학자 김용권의 「한국의 미국학: 과거-현재-미래」를 읽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이 글은 한국에서 미국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어 미국학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시작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한 역사적 이해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미국학이 하나의 학위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 있는 이상옥의 「한국 대학의 미국학 대학원 과정, 그 설치를 제안하며」를 읽기를 권한다. 이 글은 미국학이 영문학 등 기존의 분과 학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립된 과정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안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상돈의 「한국에서의 미국학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미국의 미국학과 한국의 미국학, 그리고 인문학 중심의 미국학과 사회과학중심의 미국연구를 각각 구별해서 설명하면서, 이러한 구분 하에 한국에서 바람직한 미국학 교육은 무엇인지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학 일반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세 글이 한국에서의 미국학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 글이라면 다음 글들은 기존의 학문 분과적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학에 대한 각론적 성격의 글이다. 이 글 가운데 어떤 글을 먼저 읽을 것인가는 미국학을 바라보는 독자의 관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학을 국제학 혹은 지역학의 관점에서 볼 경우 이현송의 「미국 지역학의 개념과 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현송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미국학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며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답

습할 것이 아니라, 지역학의 한 연구대상으로 미국을 타자로 간주하고 “타자로서의 미국연구하기”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전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학 연구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미국학을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를 원하는 독자의 경우에는 노재호의 「미국 문화 교육을 위한 문화연구 방법론」이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최근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키워드로 등장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미국학과 연계해서 접근한 시도로서 미국의 문학, 영화와 음악과 같은 대중문화, 광고 등을 상호텍스트적으로 분석하여 미국문화를 혼합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미국학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미국 영화를 미국의 현실정치적 의도와 연결시켜 미국문화에 내재한 문화제국적 무의식을 들춰내는 방법론을 실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화연구 방법론으로서 미국문화를 가르치면서 단순히 미국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문화비판능력도 고양시키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음을 실례로 설명한다.

만일 독자가 범위를 좀더 좁혀 미국학을 미국문학영역에 국한시켜 접근하기를 희망할 경우 임진희의 「미국문학 교육과 미국학의 접목을 위한 시도」가 유용한 안목을 제공할 것이다. 이 글은 지역학적 전망으로 미국학을 이해해야 하며, 인종, 성, 계급, 민족 등 미국사회의 쟁점을 미국문학 교육에 접목시킴으로써 백인남성중심의 교육내용의 탈중심화와 정전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미국문학의 대표적 정전작가인 마크 트웨인을 문학텍스트로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삽화와 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함으로써 교육매체의 탈중심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밖에 한국에서의 미국학의 미래를 전망하고 교육현장에 구체적 과목 개발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정연선의 「한국에서의 미국학: 그 활성화를 위하여」와 정상준의 「미국학 관련 과목 개발의 실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정연선은 미국에서의 미국학이 인문학으로서의 미국학으로 설립 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에서 왜 미국학이 필요한 학문이며 “영어와

문화 연구 중심의 인문학적 지역학”으로 자리잡기를 제안한다. 또한 정상준은 미국에서 미국학을 전공한 몇몇 안 되는 미국학 전문가로서 본인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학 관련 과목을 직접 가르치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학 관련 과목을 개발할 때 참고해야할 중요한 내용들을 적시하고 있다.

미국학 활성화를 위한 학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체 식민지의 유산인 분과적 학문체제는 미국학 수립에 가장 커다란 장애였다. 그 이유는 분과학문의 기득권 옹호와 경직성과 함께 굳이 미국학이란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기존분과학문들이 일정부분 미국학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의 교수들의 과반수 이상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미국박사들로서 그들의 자기분야에서는 미국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은 하나의 거대한 미국학 연구소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식민적 유산과 학문적 종속성이 바로 미국학이 과연 따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끝으로 필자는 한국에서 미국학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듯이, 한국에서의 미국학 역시 미국학을 하는 학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한국에서의 미국학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학을 연구하는 구성원들의 주체적 참여와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조직하고, 활동을 후원하는 중심 역할을 해온 한국아메리카학회 활성화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학회가 활성화 되면, 학문영역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미국학 연구를 위한 학회운영의 발전방안에 대한 비판적 제언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에서의 미국학의 당면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학의 개념정의, 교과목 개발, 학위과정 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미국학의 진정한 과제는 미국학에 관심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학회의 구조적 개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회의 자립적 운영과 민주

적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불혹의 나이를 맞이한 한국아메리카학회가 미국의 정신의 두 축인 에머슨의 “자립정신(self-reliance)”과 휘트만의 “민주적 전망(democratic vistas)”이 없다면 그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